

# 푸르름 속 혼란과 희망을 함께 품고

발로 딛는 제주 잠녀의 삶...구좌읍 종달리 어촌계

등록 : 2008년 10월 27일 (월) 15:13:24  
최종수정 : 2008년 10월 27일 (월) 15:13:24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넓은 모래밭에 작업할 곳 많지 않아...천초·고장초·계관초 수입 째깍 올리는 '흉작' 개답이 의무 참여·잔소리 2번 이상 채취하면 제명 처분 '엄격한' 규율로 어장 관리**

바람과 여자, 돌, 제주에서 이것 세 가지를 뺀 풍경은 낯설다.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없는 고구마 형태의 섬에 땅 끝을 의미하는 지명을 가진 구좌읍 종달리 역시 모든 것이 돌담에 둘러싸여 있다. 바다의 독살인 원과 잠녀들의 헛터인 불덕, 한라산을 향하는 발담까지, 돌담 사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다름아닌 여성, 그중 잠녀다.

옛 제주목의 끝 마을, 제주시 수협 관할 중 동쪽 경계인 종달(終達·도달함을 마쳤다)의 바다는 가장 제주적인 색깔로 아름답다.

## △제주 섬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

종달리의 상징인 지미봉의 '지미'(地尾)도 땅의 꼬리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종달리의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한경면의 두모리(頭毛里)는 제주도의 머리 부분을 의미한다니 이내 고개가 끄덕여진다.

겨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하도리 저수지를 지나면 바닷가 언덕에 작은 배 한척이 놓여있다. 종달리 전망대다. 이곳에서는 성산일출봉과 섬 속의 섬 '우도'가 한눈이다. 전망대 아래로 파도에 밀려온 우뚝 가사리 등을 골라내는 손길이 종종 목격된다.

이 곳에서 삼시 작업을 하는 잠녀는 80~90명선, 천초 작업을 할 때는 120명까지 바다로 나선다. 어장 면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좁은 편이 아니지만 모래밭이 많아 실제 물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다.

소라 생산 예상량은 2만kg 남짓, 천초는 지난해 작업에 나선 잠녀 1인당 평균 150~180kg씩 2만5000kg를 수확하면서 수입이 짝짤했다.

천초는 '할망집알'에서 많이 난다. 5~6월에 걸쳐 두차례 정도 작업을 하는 데 올해는 천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닭고달'이라고 하는 계관초와 고장초, 청각도 수입원이다.

지난해 고장초는 kg당 1200원씩 일본으로 수출했고, 계관초는 kg당 2500원을 받았다. 말리는데 공이 많이 드는 건천초도 kg당 4300원에 판매했다.

10~12월 작업하는 소라며 오분자기에 문어까지 지난해 5억8000만원 정도 벌어들였지만 올해는 장담하기 어렵다.

물질을 할만한 바다가 넓지 않다 보니 공동양식장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나마 환경이 좋은 소농곳에 지난 2006년 전복 종패 5000마리를 뿌려두고 잘 크기만 기다리고 있다.

먼바다 작업에는 임대한 배가 이용된다. 지역내 유일한 목선인 '영덕호'와 어장관리선인 '어촌호'가 잠녀들의 이동에 유용하게 쓰인다. 대신 수입의 10%를 뱃삯으로 지불하고 있다.

### **△엄격한 규약...어장 관리 철저**

어촌계마다 자체 규약이 있다. 강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촌계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매를 쓴다.

종달 어촌계는 내규를 통해 특히 '어장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어촌계원이면 누구나 툇천초 어장 개답이와 불가사리 채취 작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입어금지와 1일 5000원의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종달 어촌계는 지난 1983년 6월 이후부터 직영 판매 종사원을 두고 수집판매를 맡기고 있다.

이런 판매원 4명을 지정하는 것과 판매원 어촌 회장직 겸직 조항도 내규로 정하고 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잔소라를 채취한 자는 물품 압수는 물론 개당 벌과금 1만원, 2회 이상 적발된 자는 제명 처분한다. 욕심을 부려 잔소라까지 작업을 했다간 다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잃게 되는 어찌 보면 가혹한 처벌 조항이지만 그만큼 어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달리는 시흥리와 '고등여'어장을 놓고 오래 다투었다.

1963년 시흥리에서 어장 경계선 구분에 착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된 분쟁은 1970년대까지 계속됐다. 1차 추가협정(1964년 4월 18일)에서 종달리는 어장내 뒤웅여를 전용어장으로, 시흥리는 넓은 세배여를 전용어장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듯했지만 이른바 황금어장인 '고등여' 소유권은 쉽게 결정 내리지 못했다.

물속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잠녀들이 계속해 자신의 마을 것을 주장했지만 누구의 손도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은 수중촬영을 통해 현장을 확인, 종달리 어장임을 결정 짓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런 소동을 겪었던 바다지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시리도록 푸르고 아름다워 평화롭다. 그것이 바로 바다에 기대 살며 또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서귀포시 감정 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